

제 53회 한국음악교육학회 여름학술대회를 마치고 A Review of 2022 KMES Summer Conference

백재연*

Jae Yeon Paik

한국음악교육학회는 지난 8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제53회 여름학술대회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올해 여름학술대회의 주제는 “미래사회를 이끄는 음악교육의 방향”으로서, 음악교육의 현재를 고민하고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음악교육에 관한 담론을 나누고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하였다. 또한, 2020년과 2021년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행사를 올해는 대면으로 진행하여 많은 음악교육 학자와 유·초 중등 현장 교사들이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인사도 나누고 연구도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기조 강연, 초청 강연을 비롯하여 4개의 수업사례 발표와 3개의 워크숍, 27개의 연구발표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데, 첫째 날 진행되었던 기조 강연은 히로시마대학 교수이며 일본 음악교육학회장이신 곤도(Gondo, Atsuko) 교수님이 초청되어 ‘Music Education in Japan: The Past, the Present, and Challenges for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연 이후, 일본에서 방문해 주신 김규도 교수님과 일본 음악 교육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과 질문을 하며 강연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두 개의 특별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먼저 한국 교원대 교수이며 음악교육연구 편집위원장인 권수미 교수님이 우리 학회지인 음악교육연구의 SCOPUS 등재의 학술적 의미와 향후 과제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이후 부산교대 교수이자 APSMER(Asia-Pacific Symposium for Music Education Research)의 한국 Board member인 양종모 교수님이 2023년에 개최되는 APSMER 서울 개최에 대한 설명을 하며 내년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오전에 진행되었던 초청 강연에서는

*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한국 융합예술교육치료학회장이며 강원대 교수이신 김익진 교수님이 강의하셨으며, 프랑스 문학 연구자로서, 문학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문학교육의 활성화,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예술교육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가 예술교육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양일간 진행되었던 워크숍과 수업사례는 초등과 중등 현장 교사들에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내용을 소개하여 참석자들에게는 흥미롭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강연과 연구발표와 더불어 11일에는 국립국악고등학교 소리누리예술단의 국악 관현악 연주, 12일에는 서울 초·중등 아카펠라 교육연구회의 아카펠라 연주가 진행되었다. 첫째 날 연주회는 25명의 국악관현악단 연주자가 참여하여 양방언의 ‘프론티어’, 한태수의 ‘아름다운 나라’, 이경섭의 ‘방황’을 연주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둘째 날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아케펠라 연주팀으로서 ‘개똥벌레’, ‘Celebrity’,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래’, ‘다람쥐 메들리’, ‘Butterfly’ 등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와 동요를 아카펠라로 연주하여 잠시 쉬어가며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12일에 진행된 포스트 세션에서는 박유미, 정성은의 연구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음악교육: 대중음악을 활용한 수업 지도 방안’과 강가연, 배우리, 백이진, 차승혜의 연구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음악 교과 지도 방안, 전쟁과 평화 음악을 통한 정치적 함의와 가치판단/한·중·일 음악·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비교’가 행사장에 게재되어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여름학술대회가 3년만에 대면으로 진행되어 준비과정에서 우려와 걱정도 많았지만, 발표자, 참가자들의 협조와 조아영 이사님, 황지아, 최미설 선생님이 애써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2023년에는 APSMER-Seoul 과 함께 진행되는 여름학술대회가 올해보다 더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기대한다.